

축산신문

● 2003년 축산인 신년 교례회

축산신문사에서는 축산인들간의 새해 인사는 물론 화합의 뜻을 다지는 자리인 신년교례회를 계미년(癸未年) 새해 1월 8일 한국마사회 신관람대 6층 홀에서 갖는다.

- 일시 : 2003년 1월 8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한국마사회 신관람대 6층 홀
- 참가비 : 없음
- 문의 : (02) 871-9561(교환 206번)

한국농어민신문

● 「HACCP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최근 들어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내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도축장을 대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사는 동사 주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계육협회, 농협중앙회 등 12개 단체의 후원으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HACCP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김실중 과장은 강연을 통해 “최근 PL(제조물책임)법 시행, 식품안전사고 대형화 등으로 대형 유통업체, 학교·단체급식업체 등에서 HACCP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적용 도축장 대부분이 종업원의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시설·설비의 노후화로 HACCP 적용이 어렵다”며 “특히 소 23.2%, 돼지 45.7%, 닭 62% 등 도축장 가동률이 부진, 위생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도축장 HACCP 조기 정착과 기반구축을 위해 도축장 통합시 71억원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올해 10개소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미적용 도축장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월 2회 이상 HACCP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해 제품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HACCP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C